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잔은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이란 선·면·색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형 세계라는 관점에서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세계를 만들어 내려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잔은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나타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하였다.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은 (중략)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팍 찬 느낌을 준다. 그것은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의 물체를 원통,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꽃병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꽃병 왼쪽의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꽃병이나 식탁보와의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밑에 있는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금방이라도 사과들이 굴러떨어질 것만 같다. 그리고 식탁보 밑 왼쪽 탁자 면과 오른쪽 탁자 면의 높이가 맞지 않아 마치 두 개의 탁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모두 중전의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 온 규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잔은 원근법적 그림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대신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해서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팍 찬 느낌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면, 세잔의 그림은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나] 어떤 관상가가 장님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눈이 밝겠소.” 민첩하여 잘 달리는 자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절뚝거리며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겠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너그럽고 인자하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사람이군요.” 당시 사람들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사람이군요.”

그가 관상을 보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제양이나 복이 생겨나는 까닭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과 행동거지를 살피는 것이 모두 반대였다. 그래서 대중들은 사기꾼이라 시끄럽게 떠들며 그를 잡아다가 심문하여 그의 거짓말을 취조하려 하였다. (중략) “요염한 자태와 아름다운 얼굴을 엿보아 만지게 하고, 진기하고 좋은 물건을 보고서 그것을 탐하게 하며, 사람을 의혹되게 하고 사람을 왜곡되게 하는 것은 눈입니다. 이 때문에 뜻밖의 치욕을 당하게 된다면 눈이 밝지 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장님만이 담박하여 탐내지도 않고 만지지 않아 운몽에서 치욕을 멀리하는 것이 현각자(賢覺者)보다 뛰어나기에 ‘눈이 밝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첩하면 용기를 숭상하고 용기가 있으면 대중을 능멸하여 끝내 자객이 되거나 간악한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위(廷尉)*가 체포하고 옥졸이 가두어서 발에는 족쇄를 차고 목에는 칼을 쓰게 되니, 비록 달아나려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뚝거리며 제대로 걸을 수 없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색이라는 것은 음탕하고 사치한 사람이 보면 보석처럼 아름답게 여기고, 단정하고 순박한 사람이 보면 진흙처럼 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인자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어머니를 잃은 아이처럼 슬프게 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잔혹한 사람이 죽으면 거리마다 노래를 부르고 양고기와 술을 먹으며 축하하면서 연신 웃느라 입을 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손이 아프도록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기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정위(廷尉): 중국 진(秦)나라 때부터 형벌을 맡아보던 벼슬.

[다] 미학에서 ‘닮음’을 뜻하는 단어인 ‘유사성(resemblance)’과 ‘상사성(similitude)’의 구별에는 중요한 철학적 함의가 깔려 있다. 철학자 푸코는 유사성과 상사성을 구분해서 설명하였는데 유사성은 원본을 전제로 하는 한에서 그 원본과의 가까움을 말하고 상사성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각 존재들 사이의 같음과 다름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즉 유사성이 현전의 형이상학 - 원본과 복제, 대상과 표상, 실재와 사유의 일치 - 을 전제한다면, 원본이 없는 복제인 상사성은 근대적 형이상학의 붕괴를 함축한다. 원본이 없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할 인식론적 의무도 사라진다. 그래서 유사성의 개념이 세계에 대해 유일하게 올바른 객관적 기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전제한다면, 상사성의 개념은 그런 절대적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조금씩 차이를 내는 다양한 해석들의 놀이뿐이라는 믿음 위에서 있다.

유사성이 19세기까지 이어져 온 근대 의식 철학의 주된 원리라면, 상사성은 그것을 대체한 현대 언어 철학의 원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사성과 상사성은 이렇게 두 시대의 사유의 이미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시대 회화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르네상스에서 19세기까지 유럽의 전통 회화는 자연의 모방을 추구해 왔다. (중략) 하지만 오늘날의 회화는 그림 밖의 원본을 재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형과 색은 닮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유희하고, 설사 닮음이 있어도 그 닮음은 유사성, 즉 모델과 복제 사이의 닮음이 아니라, 원본 없는 복제들 사이의 닮음이 된다.

[라] Smart farming, which uses ICT in agriculture, includes things like drones, robots, and big data. It is revolutionizing how farmers do their jobs. (중략) Sensors attached to cows check their temperature, movement, behavior, and so on. When changes are observed, the sensors send a message to the farmer's phone or computer. For example, these sensors are being used to detect if an animal's back legs begin to lower, which is one of the first signs of illness. They can also sense if a cow is pregnant. This technology saves farmers dozens of hours a week that would otherwise be spent closely monitoring each cow. It also saves money for vets' bills by allowing farmers to deal with cows' illnesses before they get too seriou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using sensors to monitor the health of individual cows lets them live longer, healthier lives, and also improves milk production.

Smart farms take all the information from drones and animal sensors and collect it in the cloud. The information can be analyzed and then presented to farmers in a practical way. Based on the analyzed data, the farmers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an animal, a field, or the entire farm. The farmers' decisions are programmed into agribots and smart tractors immediately. The more data there are about conditions on the farm, the more accurate the decisions will be, making the farm more efficient and profitable.

[마]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현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세대가 풍요로울 수 있으면서도 미래 세대가 보존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초기에는 경제와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경제 성장, 환경 보전, 사회 안정과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뜻하는 총체적인 의미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려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인류가 지구 상에서 안전하고 지속하여 살 수 있는 환경 영역을 의미하는 지구 위험 한계선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 환경 보전, 사회 안정 및 통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속할 수 있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들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햇빛, 물, 바람,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 생산 및 설치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를 들 수 있다. 온실가스로 야기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 계층 간 통합을 위한 사회 취약 계층 지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존과 더불어 사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장이라는 점에서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주거 및 보건 의료 등에서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바] 예술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양한 예술 해석의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일원론은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참인 해석이 다수일 수 없으며,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일원론을 주장하는 대표 학자인 비어즐리는 예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발견하여 전달하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예술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이다. 또 해석이란 작품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해석자 자신이 무언가를 그 작품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예술 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작품 외부에 있는 것을 그 작품에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을 '해석'이 아니라 '부과'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책과 콩나무」를 사회 반영론적 우화로 읽는 것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심리학적 우화로 읽는 것을 해석이 아니라 부과라고 하였다. 이처럼 부과는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외부에서 연상되는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을 부인하는 다원론에서는 예술 작품의 해석에 대한 비어즐리의 견해가 실상 단순히 예술 작품에서 발견한 것을 '보고'하는 기술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다원론자들은 예술 작품의 의미는 다양하므로 목적에 따라, 또는 어떠한 해석적 배경이나 개념 틀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용 가능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녔다. 다원론자인 스테커에 따르면 하나의 예술 작품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때로는 역사적 관점으로 작품이 해석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수용자의 감상 차원, 혹은 전체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사] 오 년 전 그가 처음 오브제로 선택한 뿌리는 단풍나무 뿌리였다. 그즈음 우리는 사 년째 진전 없는 연인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다. (중략)

뿌리가 손을 떠오르게 한다고 나는 언젠가 그에게 고백한 적이 있다. 한 여인의 손을 떠오르게 한다고, 실은 모든 뿌리가 다 그녀의 손을 떠오르게 한다고. 어릴 때 고모할머니가 서너 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녀에게 따로 내어줄 만큼 방이 넉넉하지 않아서 나는 그녀와 한방을 써야 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 가족들이 그녀의 존재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테다, 그녀가 살러 들어오던 날 저녁 밥상에 올라온 감자탕에서 시래기만 가만가만 건져 먹던 그녀의 모습이 어릴 내 눈에 궁상스럽게 보여서였을까. 나는 그녀와 한방을 쓰는 것이 싫었다. (중략)

그녀가 슬그머니 내 손을 잡아온 것은, 한방을 쓴 지 보름쯤 지나서였다. 팔죽을 먹은 날 밤이었다. 그녀의 손이 이불을 들추고 몰래 파고들어오는 것을 나는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내가 깔고 누운 요가 사방이 트인 허허벌판이라도 되는 듯 그녀의 손이 주저하는 것을, 달걀 삶는 시간쯤 뜬을 들인 뒤에야 뜨문뜨문 탬포를 고르면서 요 바닥을 더듬어오던 것을, 막상 내 손에 이르자 움찔 경직되던 것을, 냉기가 돌던 그녀의 손가락들이 내 손등을 덮어오던 것을, 각지를 껴 오던 것을……. “각지를 껴 올 때 내 손가락마다 뿌리가 감겨오는 것 같았어, 끈덕지게…….” 탄식하는 내게 그는, 포도나무 뿌리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중얼거렸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가 충북 영동 쪽 포도밭으로 뿌리를 찾아 떠나면서 나와 동행한 것은. (중략)

그가 오브제로 선택하는 뿌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천제지변의 화를 입었거나,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살던 곳에서 내쫓긴 철거민들처럼 하루아침에 굴삭기에 파헤쳐진 뿌리라는 것이었다. 하루아침에 제자리에서 들려 내쫓긴 뿌리라는 것이었다. (중략)

포도나무 뿌리를 실은 그의 왜건을 타고 영동을 벗어나, 한밤의 경부 고속 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그에게 미처 못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고모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그때는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나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중략)

남귀덕…….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나를 흘끔 바라보았다. “고모할머니 이름이 남귀덕이었어.” 한 번도 불러 본 적 없는 이름을, 부를 일 없을 것 같던 이름을 나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영동 황간면 포도밭에 다녀온 뒤로 나는 고모할머니의 손이 내 손을 슬그머니 그러잡는 착각에 사로잡히고는 했다. (중략)

며칠 전 나는 우연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182명이 사망하고 55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 55명도 평균 나이가 88세가 넘어 머지않아 하나둘 세상을 뜰 것이라고 했다. 고모할머니가 죽은 뒤에도 가족들은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쉬쉬하는 듯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 그녀의 일곱 형제들이 차례로 세상을 뜬 뒤로 친척들은 아무도 그녀를 애써 기억해 내려 하지 않았다. (중략)

영동에서 구해 온 포도나무 뿌리, 그 뿌리를 나는 며칠 전 다시 보았다. 경북궁 근처 백 년도 더 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에서였다. (중략) 부엌을 개조해 만든 전시실, 공중 곡예를 하듯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그 뿌리가 영동에서 구해 온 뿌리라는 것을, 나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말리고, 방부제 처리를 하고, 오공본드를 바르고, 솜뎀을 입히는 동안 형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평 남짓한 전시실 입구 옆 명조체로 ‘남귀덕’이라고 적힌 작품명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선뜻 전시실 안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다. 포도나무 뿌리가 드리우는 흰색으로 넘쳐나는 전시실 천장과 벽과 바닥에 포도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키가 감도는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깨달았다. 고모할머니가 이불 속을 더듬어 찾던 것은 단순히 내 손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것은 흙이었다는 걸. 태어나고 자란 자리에서 파헤쳐져 내팽겨쳐진 뿌리라도 같은 자신의 존재…… 일 한 장, 꽃 한 송이, 열매 한 알 맺지 못하고 철사처럼 매달라 가던 자신의 존재를 받아 줄 흙이었다고…… 뿌리 뽑혀 떠돌던 그녀의 존재를 그나마 내치지 않고 품어 줄 한 줌의 흙.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의 ‘세잔’과 제시문 [나]의 ‘관상가’가 보여 주는 사과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다]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유사성’의 시각에서 제시문 [가]의 ‘세잔’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라]를 요약하고,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발전에 대한 관점을 대비하시오. [30점]

3 제시문 [바]의 비어즐리와 스테커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의 미술 작품 「남귀덕」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각각 평가하시오. [30점]